

문화연구에서의 몸의 문화: 콘텐츠화된 몸의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Body Contents in Cultural Study

권수빈, 김진희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창조산업연구소*, **

Kwon su-bin, Kim jin-hee*, **

Graduate School of Creative Industry, Andong National Univ, Research Center for Creative Industry*, **

요약

문화연구에서 몸은 사회현상의 담론 주제로 성, 젠더, 섹슈얼리티, 이미지 등을 중심으로 다루어져왔다. 신자유주의 시대 몸은 점차 세분화되고 기능적으로 구획화되어 단절되었다. 콘텐츠화된 몸은 몸을 둘러싼 권력을 내재화하며 왜곡하고 길들여진다. 본 연구는 한국 문화연구에서 몸에 대한 연구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몸에 대한 연구영역의 혼종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의 목적은 몸의 담론들마저 인위적으로 콘텐츠화되어 정체해 있음을 비판하는데 있다.

I. 문제 제기

몸은 시대적 화두이자 문화연구의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인간의 몸이 자연적 토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몸의 외모, 조건, 활동 등은 문화적으로 형성되므로 문화연구에서 몸을 문화적 대상으로 보고 연구해온지 20여년이 되었다. 특히, 문화연구에서 몸은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장소로서 학계가 ‘몸’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푸코가 주목한 인간의 몸에 권력의 자국이 각인된 실천, 담론, 기술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는 몸을 다루는 문화적 표현양상에서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몸을 정서적인 몸, 프로젝트로서의 몸, 일상적 실천으로서의 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문화적 몸의 표현 양식

1. 정서적인 몸

몸은 감정을 표현하며, 사회문화적으로 재구성된다. 몸을 이성에 관여하는 마음과 반대로 소유되어질 수 있는 물질적 요소로 구별해온 견해들이 있었으나, 우리의 몸은 세계와 맺게 되는 다양한 존재방식이자 실천양태를 드러내는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다. 보부아르(1989)는 몸이 사물이 아니라, 상황이며 세계에 대한 포착이고 우리의 투사라 했다. 문화연구는 정신만을 인간의 본질을 만드는 특권적 위치로 이해하는 심신이원론을 벗어나, 주요한 문화적 대상으로서 몸을 다루어왔다. 데카르트의 명제는 인간을 체화된 주체, 존재를 보장하는 것은 몸이라는 견해를 가진 이론가들에 의해 전복되었다.

어떤 상황, 즉 문화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감정은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몸의 감정은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문화적으로 형성된다. 예컨대 장소와 감정이 연관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파티에 가면 행복하고, 장례식에 가면 슬픈 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도록 규칙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몸은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움직임이자 역동적인 감정을 반영한다. 고프먼(1963)의 동작, 자세, 제스처, 광범위한 감정의 비언어적 표현 행위인 몸 관용구에 관한 설명은 감정이 몸이라는 실체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서와 긴밀한 연관을 맺는 몸은 타인과의 대면, 공유, 이입의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한다. 몸의 감정 표현에서 나아가 감정의 조절, 통제, 규칙은 몸에 대한 담론을 형성한다.

2. 프로젝트로서의 몸

대중문화와 소비문화에서 몸에 대한 이미지들과 담론들이 문화산업에 초점을 두면서 문화적 환경에서 몸은 욕망의 주체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몸 작업, 몸은 새로운 유형의 표현성과 친밀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매체이자 운반체로서 역할을 하였다. 즉, 몸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며, 감정은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몸에 대한 관심이 남성과 여성사이의 권력관계로 오랫동안 이론적, 실천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젊은 여성들은 ‘날씬함’을 얻고자 적극적인 의지의 개입과 투자로 몸을 프로젝트화 한다. 작게는 운동을 넘어 지나친 몸 학대,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이나 지방흡입 수술로 인한 사망 등 부작용과 희생을 경험하

는 ‘연기하는 자아’에 기준을 만들고 있다. ‘몸 프로젝트’는 자기 관리의 양식이자 자아정체성의 축으로서 몸을 소유한 사람의 노력과 각성으로 만들어진 삶의 양식으로 본다는 점은 몸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왜곡된 가능성이 커짐을 낳고 있다.

터너(2002)는 여성의 프로젝트화된 몸을 두고 노동하는 몸에서 욕망하는 몸으로의 위상변화와 일맥상통한다. 날씬함의 기준이 높아지는 대중매체로 인해 여성들의 몸은 늘 불만족의 대상이 되고, 몸을 변형시켜야만 정상이 되는 욕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소비문화로 변질되고, 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대중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몸을 프로젝트화 시킨다. 몸은 자아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 감정적 욕구를 표현한다. 프로젝트화된 몸에서는 인간의 수명 연장, 의료기술 발달, 인공지능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변화와 함께 프로젝트화된 몸을 두고 인간의 자아를 민주화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3. 일상적 실천으로서의 몸

일상적 실천으로서의 몸은 공유되는 수많은 몸 실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집합적으로 실현되는 생리적 잠재성으로 보는 문화기술적 방법에서 비롯되었다. 즉, 개인들은 몸 실천의 다양함 속에서 훈련되고 훈육되고 사회화된다. 몸에 대한 일상적 실천은 몸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데 일상생활의 실천들이 중요함을 가정한다. 우리의 몸은 일상의 경험 속에서 개인 및 집단적으로 표현되는데 이를 구체적인 실천 방향성에 따라 문화자본이나 상징자본으로 보는 것이다(부르디외, 1995). 한 예로, 몸은 새로운 문화코드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이것의 근거로, 최근 몇 년 사이 사람들에게 회자된 웰니스(wellness)라는 단어는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라는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몸짱, 날씬한 몸 담론도 마찬가지로이겠지만, 특히 건강해야 오래 산다는 의미로 이루어지는 몸에 대한 담론은 일상에서 쉽사리 우리 몸이 누군가에게 의도되거나 감시되었다는 의문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신자유주의시대, 우리의 몸은 모두 건강해야 한다. 경쟁과 능력주의로 무장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한 어떤 주체성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타자화된 몸은 이제 여가와 문화생활 역시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게 되면서, 우리의 몸을 점차 콘텐츠화하고 있다. 우리 몸은 몸을 둘러싼 권력을 내재화하고, 스스로 왜곡하며 길들여지고 있는 일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III. 결론을 대신하여: 콘텐츠화된 몸의 표현문제

‘신체 사회’(터너, 2002)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몸은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소비재’의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신체 사회는 각종 문제를 몸과 연결시키면서 정치화한다. 몸의 문제로 전이된 표현양식을 문화적 관점에서 정서적인 몸, 프로젝트화된 몸, 일상적 실천으로서의 몸으로 구분해 현상을 비평한 본고는 우리의 몸이 전지구적인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생산과 재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무시되거나 주변화로 간주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몸은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되고 재현되면서 발전과 정체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몸은 단순히 자연의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속으로 편입되어 기호화되면서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을 담지하고 있는 핵심 장소이자 실천체이다. 몸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있어 사회적 속박과 구성의 산물이나 언어와 담론의 산물로 몸이 논의되고 분석되는 최근 학계의 경향은 깊은 성찰이 필요하며, 콘텐츠화된 몸의 표현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

■ 참고 문헌 ■

- [1] 백주연, 송민희, “문화연구 관점에서 TV광고 속 여성 몸의 이데올로기 분석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제11권, 제6호, pp.141-172, 2012.
- [2] 조애리의 옮김, “문화코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한울, 2008.
- [3]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도서출판 새물결, 1995.
- [4] 홍석준, “몸과 문화, 그리고 몸의 정체성”, 인문연구, 제47호, pp.141-172, 2012.
- [5] Turner, B.S., The Body: Social Process and Cultural Theory. London: Sage, 1984.